

‘서울’ 과 ‘문화’ 사이에 ‘시민’ 이 있다

유인춘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인간과 문화가 변주하는 ‘서울문
화’ 가꿀 터”

창작환경 · 문화네트워크 구축이
서울의 문화경쟁력

(재)서울문화재단 유인춘 대표이사는 “자리를 맡은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비로소 재단의 틀이 잡힌 것 같다”고 안도하는 표정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과 창의적 예술가들의 열정을 충족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그는 생애 가장 승기쁜 나날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긴 뻘뻘한 도시적 삶에 문화적 여운을 드리우고, 예술의 혼품을 불어넣는 공적^{공적}의 직무가 그에게 그저 낯선 것만은 아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시도나 캠페인에 대해 어떤 문화·예술인보다 활발히 참여해 왔다. 10여 년 전부터는 극단과 극장 ‘유시어터’ 등을 만들어 배고픈 연극문화를 풍성케 하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물론 방송과 영화·연극 등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한 것은 사실. 그러나 행여 “규격화된 공직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촌평이라도 건네면 그는 ‘웬말이냐’며 정색을 한다.

“무엇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합니다. 오히려 관료적 규범에만 익숙하다 보면 일의 진척이 없어요. 큰 성과도 기대할 수도 없고요.”

‘행정을 위한 행정’은 자신의 천성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단지 문화 현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서울의 ‘문화 가꾸기’에

헌신하고 싶을 뿐이다. 임기가 3년인 만큼 아직 그 결과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자신의 직분이 갖는 문화적 소임에 대한 소명의식만큼은 그처럼 선명하다.

‘서울’과 ‘문화’를 아우름에 있어 그가 내세우는 키워드는 ‘인간’이다. “서울의 문화적 경쟁력은 바로 사람의 체취와 사람 사이의 여유로움에서 비롯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런 유 대표를 만나 ‘인간중심’을 헤드라인으로 내건 특유의 ‘서울문화론’을 들어왔다.

독서는 창의력의 원천...

책 읽는 서울 등은재단의 핵심사업

● 서울시는 이른바 ‘문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 21C에 걸맞은 수도 서울의 ‘문화 인프라’는 장차 어떤 구도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프라의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하고 싶네요. 무슨 제도나 가시적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인프라가 아니잖아요? 정신가치적 혹은 문화적·사회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특히 서울

과 같은 세계적 대도시에선 문화·예술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여유롭고 향기 있는 삶의 모습이 절실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 바로 된 도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심성도 정신적 인프라로서 그 바탕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재단에선 것처럼 의미 깊고 원대한 문화적·사회적·정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책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지적 성과물은 현대 생활인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디지털문화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화적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개하는 '책 읽는 서울' 등 독서문화 진작을 위한 노력을 그런 각도에서 소개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독서습관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주력하고 있는 예술분야만 보더라도, 예술창작과 활성화의 기초를 이루는 게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인데, 그 근원은 책임기입니다. 것처럼 독서는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하겠죠. 예컨대 '책 읽는 서울'은 그런 의미에서 뜻깊은 독서운동이죠. 매월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을 찾고, 대중들이 자주 찾는 문화공간 등을 방문해 책읽기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또 '책의 저자가 학교에 왔다'도 의미가 큰 행사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홍보를 위해 인기 가수 그룹 '신화'를 모델로 '책 읽는 서울'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네트워크는 큰 사회적 자산...
문화예술총서 등 출판 지원도 적극'*

- 이런 활동은 궁극적으로 시민과 시민단체, 문화기반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재단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요 과제가 서울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를 창출

하며,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이나 사업은 시민과 기관, 예술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는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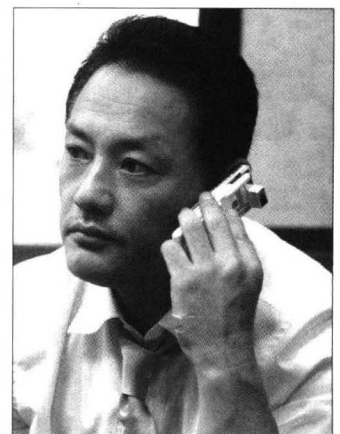
- 공익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출판활동과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어떠합니까?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지만...

재단의 경우, 올해부터 서울문화예술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총서는 일정한 형식과 체제로 계속해서 출판되어야 하는 대형 저술작업이죠. 그런만큼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게 제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재단이 자체적으로 기획 총서를 발간하는 한편, 서울문화예술총서 출판지원공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현암사와 안그라픽스 출판사를 선정, 출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반 독자들이나 출판계 반응을 보아가며 출판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는 또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키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장려책을 펴고 있습니다. 원론적 질문입니다만, 이같은 문화정책적 '메세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순기능적 의미와 작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분야 중, 기초 분야라고 할 순수 예술분야는 관객의 입장료 정도만으론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운영조차 힘들 만큼 불안한 문화예술 환경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 산업사회일수록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메세나야말로 가장 합목적적인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서습관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주력하고 있는 예술분야만 보더라도,
예술창작과 활성화의 기초를 이루는 게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인데,
그 근원은 책임기입니다.
그처럼 독서는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하겠죠.*



'우리 사회 기부문화나 문화적 소프트웨어 아직은 미흡'

● 최근의 '인디밴드' 사태에서 보듯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질과 건강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인 기준이나 합의가 아직 결여된 느낌입니다. 서울시의 문화 가꾸기 사업이 그런 기준이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과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화적 기준은 단기간에 이렇다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특히 관이 주도하는 문화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감안해 서울시에서는 용의주도한 '문화도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문화사업과 행사, 캠페인 등은 물론 단기간에 뚜렷한 문화적 성과를 보여주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서울이란 도시의 문화적 공기를 충일케 하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 서울시의 '문화 가꾸기' 사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서울이란 대도시의 문화적 척도를 높이는 데 과연 어떤 긍정적 작용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복원되는 청계천은 그 자체가 매우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런 하드웨어는 구성되어 있는 반면, 그 시설들에 생명과 문화를 불어넣는 소프트웨어가 매우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예컨대 청계천 주변에서의 거리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아직 익숙지 못한 시민들에게 '청계천 거리예술가' 등을 통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선 예술가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술인 지원 시스템 모형 정략...

'출판계, 독서문화 절인차역할 기대'

● 우리 사회에선 아직 건강한 기부 문화가 생활화돼 있지 못한 듯합니다. 서울시의 각종 문화 가꾸기 사업이나 메세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시민과 기업체 등의 호응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보지만, 현실은 어떠한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은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칩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기부문화에 익숙지 않은 탓이겠죠. 그리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대가 없이 선한 동기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기부자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세제혜택 등을 받는다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해도, 실제론 기부한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손비

처리' 등 좀더 분명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문화 관련 정부 기관에 비해 재단 소관의 기부행위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 이런 일련의 활동과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이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성과를 확인할 만큼 어떠한 문화적·사회적 현상 변화나 시민들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요?

그건 너무 이른 기대라고 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술인들만큼은 당국의 지원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크게 바꾸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는 다년간 꾸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모형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전문예술가 지원의 경우, 지원 심의를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지원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선정하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모범적인 지원제도의 관행을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출판문화나 출판현실에 관해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이나 각별히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습니까?

책 읽는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 시작은 독서부터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린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도록 강요하면서 청소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할수록 학업에 밀리고 취업에 밀려 오히려 독서할 마음의 여유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걸 결코 시간이 없어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판 현실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네요.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 독서문화를 이끄는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바른 교육과 독서 생활화에 솔선해서 앞장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최근 읽은 책 가운데 주변에 특별히 권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재단을 맡고 나서부터 무척 시간에 쫓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책을 손에서 놓진 않습니다. 출간된 지 꽤 되긴 하지만, 최근 《책문》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군신간의 교감을 통해 옛 선조들의 정신적·사상적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대표적에 취임한 후론 특히 역사와 건축 관련 책을 즐겨 읽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맡은 일과 비슷한 관심사를 챙기고 싶어서겠죠. 또 영화나 국악에 관한 책도 평소 좋아합니다. **▶▶▶**

대담_박경만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